

한국농어촌공사 진도지사, '농어촌 집 고쳐주기' 행복충전 활동

화장실과 창호 등 주거의 시설 개보수

김육봉 기자(=전남) | 2025.07.15. 19:42:15

한국농어촌공사 진도지사(지사장 최 진)는 15일 진도군 진도읍 수역리에 위치한 이모씨 농가를 대상으로 '농어촌 집 고쳐주기' 행복 충전활동을 실시했다.

이번 활동의 수혜자는 화장실과 창호 등 주거의 각종 노후로 인해 안전과 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.



▲농어촌 집고쳐주기행사©한국농어촌공사 진도지사

이에 진도지사는 전문 보수업체와 함께 화장실, 주방, 창호 등 취약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보수 작업을 실시했으며 특히 폐기물 및 자재 운반, 주변 환경정리 등 직원들의 실질적인 활동을 통해 정주여건 개선에 힘을 보탰다.

수혜자인 이모씨는 "노후화된 집으로 인해 혼자 살면서 무슨 사고가 생길까 항상 걱정이 많았는데 남은 여생을 편하게 보낼 수 있겠다며 정말 고맙다"고 말했다.

최 진 진도지사장은 "수혜자가 더욱 안전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지낼 수 있게 돼 기쁘다"며 "앞으로도 지역 상생을 위한 다양한 행복충전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천할 것"이라고 말했다.

